

■ 줌인 동남아시아 ■
Zoom-in Southeast Asia



미얀마의 신년축제, 땡장(Thingyan)

김인아*
KIM In A

땡장은 미얀마의 신년을 기념하는 물축제로, 일 년 중 가장 무더운 4월 중순경에 시작되어 보통 1~2주일 정도 계속되는, 미얀마 국민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최대의 행사이다. 거리 곳곳마다 여기저기서 뿌려대는 물로 거리는 온통 물난리로, 이 기간만큼은 모든 일상생활의 업무가 중단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에게 물을 쏟아 붓고 맞으며 축제를 즐긴다.

특히 양공과 같은 도심지역에서 땡장 물축제는 패쇄적이고 억압된 미얀마 젊은이들의 숨겨진 열정을 마음껏 표출하는 해방구의 역할을 하는데, 이날만큼은 미얀마 전통 복장인 롱지(longyi)를 벗어던지고 청바지나 짧은 스커트와 같이 과감한 서양식 복장을 하고, 음악을 크게 틀 트럭위에 올라 거리를 돌며 춤을 추고 행인들에게 물을 뿌린다. 바가지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지역원 HK연구교수

나, 드럼통 외에 심지어는 소방호수까지 동원하여 세찬 물 폭탄을 뿌려 대지만, 아픈 물세례를 받은 거리의 행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성을 내는 법이 없다.



<그림 1> 도심의 핑장 축제. 양공.
(출처:http://en.wikipedia.org/wiki/File:Thingyan_1.jpg)

이과 같이 미얀마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면서, 온 국민이 일 년을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가 바로 미얀마의 신년축제인 핑장(Thingyan, ‘더장’ 또는 축제라는 의미를 지닌 pwe와 결합하여 ‘핑장뽀’이라고도 부른다)이다.

이 대규모 축제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동원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지역의 고온다습한 기후적 조건 때문에 무더위를 씻고 청량함을 느끼기 위한 것일까? 미얀마에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는 휴식과 오락을 위한 유흥적 의미 외에도, 과거에 축적된 악덕(惡德), 즉 죄의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 내리고 새해를 정결하게 시작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핑장이라는 명칭 역시 ‘모든 것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지닌 산스크리트(Sanskrit)어인 띠파우(Thithau)에서 유래된 말로 묶은 해를 덮고 새해의 새로움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말하지만 미얀마에서 물이란 영적 불순함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생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의례

적 상징물인 것이다.

이 축제 기간에 뿌려지는 물을 미얀마어로 어파예(Athaye)라고 한다. 어파(Atha)는 인도의 암리따(Amrta, 힌두교 신화에서 등장하는 영생으로 이끄는 묘약을 의미)에서, 예(Ye)는 니르(Nir, 물을 의미)에서 유래된 말이다. 말하자면 영생수(永生水)의 의미이다. 따라서 물 뿌리기, 물로 씻기란 영생의 상징인 물을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뿌려줌으로써 서로의 악덕을 씻어 내리는 동시에 내세를 향한 공덕(功德)까지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행위이자, 영원한 생명의 재생을 상징하는 불교적 영생의 행위이다. 과거에 왕위대관식에서 새로운 왕은 왕관을 쓰기 전에 깨끗한 물로 세발(洗髮)하는 관습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과 신부, 또는 어린 소년이 불문(佛門)에 입문할 때 치르는 의식(이 의식을 ‘싱뿌(Shinpyu)’라고 한다)의 과정에서도 물로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씻는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의 불교도들은 집집마다 혹은 사원마다 봉안된 불상의 정수리에 향내가 나는 물을 붓는 종교적 의례가 일상화 되어있는데, 띠장 축제에는 이러한 일상적인 의례뿐만 아니라 신에게 제를 올리는 술을 땅에 땅위에 뿌리는 의례도 곁들인다.



<그림 2>
불상의 머리에 물을 붓는 참배객.
쉐더곤 파고다(Shwedagon Pagoda).
양공.

이 축제는 버강(Bagan)왕조시대에는 국왕의 주관 아래 개최된 왕실 주최의 행사였다. 궁중의 왕족 및 대신이 모두 참가하여 불교의 업보 정화의 의미로 준수된 종교적 의례였던 것이다. 특히 버강왕조의 마지막 왕인 나라띠하빠띠(Narathihapati, 1254~1287)왕은 거리로 모두 나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야와디(Ayeyarwady)강물을 이용해 직접 궁중의 물축제를 행사하여 이를 사람들이 강변에 줄을 지어 서서 감상하고 즐기도록 했다고 한다.



<그림 3> 버강시대 왕실의 명장 축제를 묘사한 회화.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Bagan_era_painting_of_Thingyan.jpg)

명장은 불교적 의례와 토속신앙인 낫(Nat, 정령)숭배 신앙이 어우러진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얀마에 불교가 도입되기 전부터 신봉되어온 낫신앙은 모든 존재에 낫이 깃들어 있다는 사상으로 당시에는 실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낫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11세기 중엽 미얀마 최초의 통일 왕조 버강왕국을 건립한 어노여타(Anawratha)왕은 이 수많은 낫들을 37개로 정리하고 상좌부불교를 도입하여 낫신앙과 결합시켰다. 이들 낫은 미얀마의 성산인 뽀빠(Popa)산에 안치되었다. 이때 낫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낫들의 왕을 고안해 내어 기존의 낫들을 36개로 정리하고, 이들을 관장하는 낫들의 왕인 드

쟈밍(Thangyamin)을 고안하여 27개의 낮을 탄생시킨 것이다. 드쟈밍은 우뢰와 비를 관장하는 불교의 제석천(帝釋天)이자 힌두교의 우싱(雨神) 인드라(Indra)에 해당하는데, 땡장은 바로 인드라인 드쟈밍이 인간 세상에 강림하리라고 예상되는 시기에 그에게 물을 헌납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소 3~5일 동안 계속되는데, 물을 뿌리는 땡장의 기간은 매년 뽀우나(Pounna, 산스크리트어인 Brahmin)에서 유래)라고 하는 점성술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4> 낮(Nat) 신상을 안치한 제단. 버강.

드쟈밍의 주요 역할은 그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선행 공덕을 평가하여 사후 세계를 결정짓는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얀마의 신년 축제는 드쟈밍이 강림할 때 시작된다. 드쟈밍은 지상세계로 내려올 때 두 권의 명부를 들고 내려온다고 한다. 한 손에는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한 금장이 된 명부를, 다른 한 손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한 견피(犬皮)로 된 명부를 가져온다. 명부에 이름이 기입되는 순간 그 사람들의 내세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드쟈밍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사원 및 승원

에 보시행위를 하거나 불문에 입문하거나 명상센터에서 참선함으로써 공덕을 쌓으려고 한다.



<그림 5>

드자밍 모형. 쉘데곤 파고다 (Shwedagon Pagoda). 양공.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Thagyamin_at_Shwedagon_Pagoda.jpg)

철저한 불교신도들은 신년축제가 열리는 사흘 동안 자신의 악덕을 좀 더 구체적이고 경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금식하며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팔정도(八正道)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한다. 명상의 기간인 이 시기동안 여러 다양한 헌물의식이 치러지면서 갖가지 공양물이 승려들에게 바쳐진다. 미얀마 재가신자들의 승려들에 대한 보시행위, 특히 수주에(hsungywe)라 일컫는 식사보시는 가장 손쉽고도 일상적인 공덕축적의 행위이기도 하다.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신자들은 사원에 기거하면서 불경을 암송하고 경내를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미얀마 땅 전역에 경의를 표하는 축포가 터지고, 악대의 음악이 성대하게 울려 퍼진다. 떠들썩한 광대들과 악사들이 동반되며, 수륙양서이자 때때로 하늘을 날기도 하는 뱀인 나가(Naga)의 모형을 새긴 배가 바다 위에 띄워지거나 배 밑단에 별도의 바퀴를 장착해 거리를 순회하기도 한다. 저녁에는 사람들은 강가나 연못에 나와 연등, 향불, 꽃, 촛불 등을 물 위로 띄우기도 한다. 작은 불빛이 깜박거

리는 물기는 매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특히 수상마을 주민들은 쪽배를 타고 강가로 모두 나와 강물을 퍼서 서로에게 뿌리기도 하고 강 표면에 연등을 띄우기도 한다. 가옥은 온통 종교적 봉헌물과 깃발, 그리고 땡장꽃(badauk)이라 불리는 향기 나는 화려하게 장식된다.



<그림 6> 1950년대 땡장의 공연. 무용수들과 바퀴 달린 배의 순회. 만달레이(Mandalay).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Old_Myoma_Thingyan.JPG)

오늘날에 이 축제는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주로 젊은이들의 흥미와 재미의 축제로 변모하였다. 도심 곳곳에 간이노점상들이 즐비하고 수줍음 없는 젊은 남녀의 흥겨운 노래 소리와 과감한 춤이 펼쳐진다. 또한 거리에서 여러 다양한 퍼포먼스가 전개되는데 무용수, 코미디언, 영화 배우 및 대중가요의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곽의 시골이나 도심의 사원 내에선 경건한 종교적 의례가 실천되며, 각 가정 내에서도 연소자가 연장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손발톱을 잘라주는 등의 전통적 행위는 퇴색 없이 지속되고 있다. 땡장과 유사한 물축제가 이웃나라인 태국, 라오스 등지에서도 열리는데, 특별히 발달된 물축제는 아마도 풍부한 수량의 강을 끼고 전통적으로 물을 중시하는 농경문화를 공유하는 동남아시아의 특징에 기인할 것이다.

